

# 친명은 '통합' 비명은 '혁신'에 방점

민주 당권레이스 가열

친명계 "변화 위해 힘 모아야"

97그룹 "주류 기득권 내려놔야"

윤영찬·고민정 최고위원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달 28일 전체 당 대표 후보 가운데 최종 3명의 후보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1차 관문'을 넘기 위한 후보들의 차별화 전략도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다.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권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상임고문은 비명(비이재명)계를 아우르는 통합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이에 맞서는 비명계 주자들은 '어대명'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을 깨기 위한 과감한 혁신으로 승부를 보려는 태세다.

이 고문에 맞서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중 한 명인 강병원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을 당 대표가 아닌 중앙위에서 인준하도록 하는 등 당 대표의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게 핵심이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석열 정부가 자주 실수하는 상황에서 '기회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진다"면서 "정부에 실망이 커도 민주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혁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결국 어느새 당의 주류가 된 이 고문과 친명(친이재명)계는 이미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만큼 이들이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대교체를 등에 업은 이들이 주류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고 전면에 나서야 선거 패배의 흔적을 지울 수 있고 민심에 강력한 혁신의 의지도 보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종환(가운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일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강훈식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새로운 사람들이 나서면 국민이 '달라지는구나, 혁신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1위 주자로서 이들의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이 고문과 친명계 역시 혁신의 중요성을 간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력은 당의 통합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비명계와는 확실히 결이 다르다.

당원 지지세가 가장 두터운 이 고문이 당권을 잡아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합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변화를 만들려면 통합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계파에 따른 의원 간 불신을 없애고 강성·온건 지지자를 통합해 이를 바탕으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엇갈리는 이해관계로 당권 주자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전에서도 비교적 잠잠했던 친문(친문재인)계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이전까지 친명 성향의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차별회'의 장경태, 이수진(동작을), 양이원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친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인단 일부에 대해서는 온라인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26일부터 사흘간 2개 기관을 통해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탁금은 당 대표 후보자의 경우 총 8000만원(본경선 6500만원+예비경선 1500만원), 최고위원 후보자의 경우 총 3000만원(본경선 2500만원+예비경선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광주시·전남도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

시·도지사 참석 28일 전남도청

협력과제 42건 협력 방안 등 논의

민선 8기 광주·전남의 첫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린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적극적인 상생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현안에 대한 진전이 있을 지 주목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오는 28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동협력과제(신규 9건, 기존 33건) 42건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 구성돼 양 지역 간 상생 협력 과제를 추진해 왔다.

민선 8기 들어 처음 열리는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기존 공동협력과제(30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측이 새로 발굴한 신규 협력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양 시·도 자원위원 및 실무위원 30여명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상생발전 실무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1시30분 전남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상생발전위원회에 앞서 논의의 안건, 의제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모두 상생 협력과제로 반도체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신규 협력 과제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시·도 수장 만남을 통해 구체적 실행 계획 등이 논의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선 7기 때 이전으로 지지부진했던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도 상생 모드를 바탕으로 실마리를 찾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남에서는 또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등을 신규 협력과제로 올려놓았다.

다만, 교착상태에 빠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이번에는 논의의 테이블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김원이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취약지 근무 의사 인건비 국가 보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전남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7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하지만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

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2020년 기준)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명)가 전남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간 의료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준석 징계 끝나자 세력화 시동 건 안철수

첫 토론회 '친윤' 등 의원 40명 참석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12일 글로벌 경제위기를 주제로 첫 '민·당·정'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물이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대선 단일화 후 '국민의힘' 이름표를 달고 안 의원이 처음으로 주도한 정책토론행사다.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로 집권여당 내 당권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안 의원이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당내 의원들과 접점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동반추락하는 위기 속에 열렸다.

단일화에 따른 '공동정부'를 약속받고 '인수위원장'까지 맡는 등 새정부의 상징지분을 보유한

안 의원이 6·1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하자마자 정책과제부터 챙기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당권주자로 분류되지만 보수정당 내 뚜렷한 지지세력이 없다. 사실상 '신입생' 처지나 다름없는 안 의원이 가장 자신 있었다고 여기는 정책 분야부터 파고들며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겨냥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로 자리를 비운 뒤 열린 첫번째 대규모 의원모임이었다.

토론회엔 약 40명 안팎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배현진·정점식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두루 자리했다.

/연합뉴스

## 송갑석, 호남 단일주자로 지도부 진입 노리는데...

친명, 주철현 의원에 출마 권유

최고위원 2명 출마편 표 분산 우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정치권이 광주 시장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서구 갑)을 호남 최고위원 단일주자로 내세워 지도부 진입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상임고문 진영에서 호남의 친명(친 이재명) 최고위원 카드를 모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상임고문 측 인사들은 최근 전남의 주철현 의원(여수 갑)에게 호남 최고위원 주자로 나서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 당초 민형배 의원(광산 을)을 8월 전대에서 호

남 최고위원 주자로 고려했으나 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이 '꿈수 탈당' 논란에 휩싸여 복당이 불발되자 전남의 주철현 의원에게 최고위원 출마를 강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남에서 두 명의 최고위원 주자가 나설 경우,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 민심의 창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호남 표심 분산 등으로 두 후보 모두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선택과 집중을 하고, 협력을 해도 호남 최고위원 주자의 지도부 입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친명 진영이 오히려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리하게 친명 카드를 밀어부친다면 오히려 역풍이

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친명 진영의 호남 최고위원 카드를 놓고 '무리수'라는 지적과 함께 혁신의 가치가 아닌 대세론을 등에 업고 일방통행식 태도를 보인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재명 고문 진영 인사들이 최고위원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있어 부담"이라며 "하지만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송갑석 의원과는 각별한 관계여서 출마 권유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고문이 당권 도전에 앞서 호남 최고위원 주자와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투자자 모심

1. 자금 - 5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주식회사 오 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H. 010-3605-5000